

# '생활체육 활성화 거점' 영광스포츠센터 9월 문 연다

### 장애인 함께 이용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신축 가상현실 체험실·장애인 수중운동시설 등 구축

영광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영광스포츠센터가 오는 9월 문을 연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영광읍 단주리 일원에 착공한 영광스포츠센터는 총사업비 120억원에 들어 연면적 3055㎡,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난해 5월 본관동 스포츠센터 공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 수중운동시설 증축 공사가 한창이다. 스포츠센터 1층엔 공간과 신체적 제약 없이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VR(가상현실) 체험관이 조성된다.

해당 시설은 4차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체육에 대한 영광군민의 인식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층은 요가·에어로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생활



영광스포츠센터 조감도.

체육공간과 장애인 체육 인센터 또는 노인·어린이 체육 교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중심 공간인 3층 다목적체육관은 배드민턴과 탁

구·론볼·보치아·댄스스포츠 등을 비롯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경기 시설을 함께 갖추게 된다.

주목받는 '1층 수중운동시설'은 연면적 832㎡에 총 3레인 규모의 장애인 우선 이용시설이지만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 기준에 충족하도록 설계했다.

시설이 완공되면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을 증진하고 재활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은 스포츠센터 건립으로 스포츠 선도 도시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체육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사회통합이라는 시너지 효과와 함께 장애인 스포츠 시설 공백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스포츠센터가 누구에게나 열린 생활체육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스포츠 교류의 장이자 IT 스포츠 체험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완공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오는 19일까지 닷새간 무료 개방하는 목포 근대역사 1관 전경.

<목포시 제공>

## 목포 근대역사관 19일까지 닷새간 무료개방

### 국가유산청 새 출발 기념

문화재청이 새로운 이름인 국가유산청으로 출범하면서 이를 기념해 목포 근대역사관(1~2관)이 무료 개방된다.

목포시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목포 근대역사관 1~2관을 무료 개방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무료 개방은 오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옛 목포일변역사관인 목포근대역사 1관은 국가 지정문화재(사적 제289호)로 지정됐다.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인 근대역사 2관은 전남도 지정문화유산(기념물 174호)으로 등록됐다.

목포 근대역사관은 지난해 25만명이 찾은 목포의 대표적인 명소이다. 일제강점기와 목포항

개항 시절 목포의 사회상을 느낄 수 있다.

국가유산청의 출범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정책 체계 전반을 개선·제정된 국가유산 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문화재 정책체계가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된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구분되며, 체제의 전환 주요 내용은 국가유산의 원형 유지보다 가치의 전승을, 규제보다는 활용·진흥 등에 중점을 두게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국가유산청 출범과 더불어 목포를 찾는 방문객들이 근대역사관에서 일제강점기와 목포항 개항 시절의 목포의 사회상을 보고 느낄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영림 기자 kyl@kwangju.co.kr

## 완도군 '민·관 협력'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박차

### 지역 협의체와 업무협약

### 완도형 교육발전 모델 개발 나서

완도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완도형 교육 발전 모델' 개발에 나섰다.

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지역 협의체와 업무 협약식과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김정선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황유선 완도수산고등학교 교장, 박희연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센터장, 박수미 ㈜이노플릭스 대표 등을 비롯한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 기관들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기획서 마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교육 발전 전략 수립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 균형 발전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완도군 교육발전특구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도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완도형 교육 발전 모델 개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연구를 진행한 조선대학교 산학



완도군(군수 신우철·오른쪽 세 번째)과 완도교육지원청, 조선대 등이 다음 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협력단의 보고를 들었다. 참석자들은 추진 사항을 검토하고 최종 연구에 반영돼야 할 사항 등에 관련 의견을 나눴다.

완도군은 중간 보고회에서 수립된 내용을 수정·보완해 오는 6월 예정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저출생과 우수 인재 유출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 소멸의 시대에 돌부터 취임까지 이어지는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협의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완도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신안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최우수 등급

### 226개 기초단체 실적 중간평가

신안군이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90일간 '2024 민선 8기 2년 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를 벌인 결과 신안군을 SA등급(최우수)에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차 평가에서 사·군·구청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했다. 이어 소명·보완자료를 검토해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항목은 공약이행 완료, 2023년 목표달성, 주민 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이다.

분야별 세부지표를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전국 226개 기초단체를 A-F등급으로 분류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군민과 약속인 공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군민, 공약이행 평가단과 함께 공약이행 실적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했다"며 "임기 내에 모든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민선 8기 임기 내 공약 이행을 100%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공약 이행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 특강 등을 열 방침이다.

신안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 부분) 약속대상 '우수상', 2023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A등급',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박우량 신안군수

## 영암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자원화 센터' 추진

### 12개 기관·단체·업체 등 업무협약...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협력



영암군에 민관협력 지역상생 사업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재자원화' 시설이 추진된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군청 남상실에서 국토부 공모사업을 위한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협약에는 영암군과 영암군에너지센터,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광양이엔에스, 한스네트웍, 모나일렉트릭, 현대삼호중공업, 전남테크노파크 등 12개 기관과 민간단체·업체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영암군의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 상생구조 조성, 지역 미래먹거리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가칭)영암 전기차 폐배터리 재자원화 일괄검사·전처리센터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자원화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상생발전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자원화 센터는 1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삼호읍 삼포리 국제자동차경주장 인근에 조성할 계획이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해남 고구마연구센터 2025년까지 건립

### 신품종 개발·보급 확대 업무협약

해남군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고구마 국내 육성 품종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에서는 해남고구마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구마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남군은 삼산면 평화리에 3만㎡(약 9090평) 규모 고구마연구센터를 2025년까지 완공해 고구마 우량품종 선별과 재배기술 개발을 총괄 수행한다.

신품종 씨고구마와 조직배양묘의 증식과 보급을 위한 씨고구마 단지를 조성해 다양한 고구마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국내육성 품종의 개발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신 품종 기본식물을 우선 공급하고, 신품종 육종과 재배, 분양과 병해충 기술개발 등 현장실증 연구에 협력하는 한편 씨고구마와 조직배양묘 보급을 적극 지원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몰'

### 6월9일까지 다양한 할인 행사

무안 대표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몰'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6월9일까지 다양한 할인 행사를 벌인다.

31일까지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활토람쌀'을 20% 할인된 가격에 무료 배송받을 수 있다.

오는 6월9일까지는 맛플무안몰에서 2만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 할인권을 준다.

전 상품 20% 할인권 증정과 햅팜파 기획전, 경품 추첨 행사 등도 벌이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가정의 달 기념 기획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지역 경제 회에 보탬이 되겠다"며 "특히 이번 기획전은 무안군의 우수한 쌀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기회"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 20개 유관기관과 '불런투어'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진웅)가 지난 14일 목포지역 공기업기관 장협의회(이하 공우회)와 합동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신안 도초면 우이도에서 탄소중립 실천 및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연계한 불런투어를 추진했다. <사진>

공우회는 전남서부지역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한국은행 목포본부 등 20개 기관으로 구성

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날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우이도 사구해안의 해양쓰레기 현황과 해양오염 실태를 공유하고 해양생태계 보전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했다.

이전용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소장은 "이번 불런투어 활동을 계기로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